

한반도 첫 수도 고창소식

12
2021
제 477호



발행처 고창군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전화 063.560.2327
FAX 063.560.2259 홈페이지 <http://www.gochang.go.kr>

고창군에서 매월 발행하는 군정 소식지로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구독을 원하지 않으시면 연락 주세요. (063.560.2327)
'고창소식' 이젠 스마트폰에서 보세요. (고창군 스마트알리미 어플 무료로 다운)



사람과 자연이
함께사는
고창

세계 100대 관광지 고인돌 운곡습지
UN세계관광기구 최우수관광마을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앙제어



고창군 대기환경 정보 알리미

[현장] 고창군 지역소멸 위기극복 정책포럼

고창군 인구소멸 고위험지역 포함..출입기자단 나서서 포럼 열고 대책모색 '눈길'



“청년층 인구유출 심각”

“지속가능한 기업유치로
매력적인 일자리 확보해야”

고창군출입기자단과 한국식생학회가 주관하는 ‘지역소멸 위기극복 정책포럼’이 지난 12월3일 오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지역의 미래생존 전략을 찾고, 청년이 찾는 고창, 지속가능한 기업유치 방안 등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첫 발제를 맡은 최예술 박사(국토연구원)는 ‘지역인구 감소 실태와 대응방안’을 통해 “고창군의 최근 3년간 청년층 순이동은 -3310명에 달하고, 최근 3년간 전출자 중 청년층 비중은 37%로 전북 군단위 중에선 가장 높다”며 “청년 인구유출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눈에 띄었다. 군민들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동우팜투테이블 입주 진행상황”, “배추나 무 등 1차 산업을 뛰어넘는 김치 등 농식품 가공산업의 육성방안”, “매일유업 상하우유 공장의 사례를 통해 본 기업유치 환경규제 해소방안” 등을 질문했다. 이날 포럼은 밀도 높은 발제와 토론으로 예정된 시각을 훨씬 넘긴 4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양재 명예교수(원광대)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포럼은 지역 출입기자단이 군민들과 한마음이 돼 주관해 더 의미가 컸다”며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을 고창의 것으로 잘 담아내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본격 운영..258대 동시주차 가능

2

고창군 고창읍내 중심시가지에 258면의 주차타워가 본격 운영된다.

고창읍 공영주차타워는 한 번에 258대의 차량이 동시주차 가능하다. 장애인 전용(7대) 구역을 갖췄고, 전기차 충전도 가능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또 층별 주차현황 및 주차 가능 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차유도 시스템, 엘리베이터, 비상벨, CCTV 등 최신 설비도 설치됐다. 주차타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진·출입로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뤄진다.

📍 위치 고창읍 읍내리 197-4번지 일원



·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안내 ·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숨긴다’, ‘너무 많이 문자가 와서 귀찮다’ 등의 오해가 있으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 송출시간 | 06:00~21:00(심야시간 송출 금지)

| 발생현황 | 1일 1회 송출 (선별진료소 검사 후 시간 차를 두고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재난문자 송출은 당일 (또는 전일)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현황을 1일 1회 송출)

*시정홍보, 보편적 방역수칙, 전원음성 등 기타 불필요 정보 송출 금지

| 확진자 현황 및 이동경로 | 역학조사 완료 후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재

|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기준 |

[감염병예방법제3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상 호 명)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중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 단, 2020. 4. 1일 이후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이거나 가구원일 경우 지원제외

지원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최대지원금액 (14일 이상격리)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69,7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신청방법 및 장소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 입원자가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필요 시)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추가접종은
델타변이 바이러스와
돌파감염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줍니다.”

최근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과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초 예방접종을 받으신
의료기관 종사자와 우선접종 직업군 등
백신의 예방효과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접종 대상자분들은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본인의 건강을 위해 추가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
(대한소아감염학회 회장,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제28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84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31일간 운영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시책보고,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고, 상임·특별위원회를 통한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5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였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집행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불합리한 부분 84건에 대해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감사 중 현장방문을 실시한 부안면 소재 고창전통발효식품 영농조합법인과 고창 복분자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등 보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회기동안에 군정질문·답변도 진행됐다. 첫 번째로, 임정호 의원은 손화중 도소의 관리방안 및 진입로 확포장, 와탄천 지역 가뭄 극복방안에 대해 질문했고, 두 번째로, 이경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후속대책, 청년·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 출산환경 조성 관련, 다자녀기준 확대 지원,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해 질문했다. 세 번째로, 김미란 의원은 청소년수련관 관련, 동우팜투데이블 입주에 대한 질문을 했으며 네 번째로, 조민규 의원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신림종돈개량사업소 이전·폐업과 농협연수원 유치, 해상경계 확정에 따른 어업권 분쟁, 노을대교를 해저터널로 제안하는 질문을 하였다.

최인규 의장은 “2021년 한 해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 없는 세상을 위하여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4

성명서

- 사용후핵연료 정책, 안정성 확보와 국민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 원전관련 정책은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우리나라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1978년 고리1호기 가동 이후 43년간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약 1만7천5백 여 톤이 보관되고 있으며, 조만간 포화상태에 임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은 월성원전 2022년, 한빛원전 2029년, 한울원전 2030년, 고리원전 2031년, 신월성원전 2043년 등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포화상태 이후의 처리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도 월성원전 맥스터 적기 건설, 특별법 제정,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만 정부에 권고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지난 4월 해체되어버린 상황이다.

이처럼,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이 당장 내년 초로 임박한 월성원전, 2029년인 한빛원전을 비롯한 국내 거의 모든 원전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된 핵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증설만으로 현재 위기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어, 추후 엄청난 사회적비용과 국민들의 희생이 따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게다가, 지난 9월 15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발의하여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핵폐기장으로 만들려는 것은, 원전 가동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상존함에도 최소한의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원전 인근지역 314만 국민들과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조만간 포화상태가 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 시점에, 정부와 관련법안 입안 정치권에게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원전정책 수립에 있어 무한대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원전인근 314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안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셋째, 사용후핵연료 처리정책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라.

2021년 12월 10일

고창군의회

공공체육시설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으로

고창군, 파크골프장 난립 막아야

인구소멸지역, 위기를 기회로

정부주도의 산업화 정책 속에 도시는 과밀화 되고, 농촌은 인구절벽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하여 농촌은 소멸 예정 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이렇듯 지방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지 오래다. 감소하다 못해 이제는 소멸위기 지역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글프게도 소멸예정지역 중에 전라북도 대부분의 시·군이 포함되어 있고, 내 고향 고창도 예외는 아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 울음소리는 그치지 오래고, 어르신과 외국인만이 들뜬에 군데군데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위기에서 우리 지역을 지켜내고 고창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살아남으려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또 모아야 할 것이다.



읍·면별 사업 지양, 권역별 발전 도모해야

소멸위기라는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지역발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택과 집중전략은 불가피할 것이다. 소멸 위기 지역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느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바로 민생경제 회복,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먹고 살만한 고창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기에도 우리 재정은 빠듯하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분야에 예산을 넉넉히 편성할 만큼의 여유가 없다. 그러므로 각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농업 등의 경제기반 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은 기존처럼 14개 읍·면에 두더라도, 여가생활을 위한 체육·문화시설 등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필자는 오랜 의정활동 기간 동안 변함없이 주장해왔다. 즉, 고창군을 동·서·남·북부권과 중심권, 이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종합적 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상호연계와 조정 없이 무분별하고 산발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 간 연계와 과감한 통합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집행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멸하지 않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으로 달려가야 할 때이지, 한가롭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 권역별 건립 추진해야

현재 고창군의 상황을 살펴보자.

고창군에는 14개 각 읍·면별로 체육관이 하나씩 딱하니 들어서 있다. 면민들에게 꼭 필요한 체육관이지만, 그 체육관 하나를 건립하고 유지하는 데는 관리비와 유지보수비, 인건비 등 수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게 상당한 예산을 들여 유지하고 있는 각 체육관의 연평균 이용일 수 등을 살펴보면, 1년 365일 중 40일도 채 되지 않는다.

면 단위의 불 꺼진 체육관을 볼 때마다, '20여 년 전 본인이 제안했던 대로' 인접해 있는 서너 개의 면을 하나로 묶어, 그 중 중심에 위치한 면에 체육관 하나를 지어 함께 사용하게 했다면 지금과 같은 예산낭비는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다. 원거리 이동이 자유로운 요즘 체육관이 굳이 집 가까이 위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다른 공공체육시설도 예외는 아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요즘, 건강100세를 위해 노인스포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각 읍·면별로 파크골프장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많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확고하다. 각 읍·면별 체육관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교훈삼아, 앞으로는 민원에 이끌려 각 읍·면에 하나씩 파크골프장을 짓는 일이 없도록, 파크골프장만큼은 절대적으로 권역별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번, 공음면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하여 고창군의회에서 재논의 하고자 했던 이유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고창군의 인구·연령·성별 등이 전체적으로 고려된 중장기적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꼭 필요한 곳에 체육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함이었다.

결론적으로, 고창군은 각 읍·면별로 공공체육시설을 지어 운영하기에는 군 재원에 한계가 있다. 체육관, 파크골프장이 끝이겠는가? 제2, 제3의 예산 낭비 주범들을 자기 지역에 세워달라는 지역이기주의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고창군의 존립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군민이 잘 먹고 잘사는 고창을 만들려면 지역 상생을 위해 우리는 온 정신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쏟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잘 노는 고창은 그 다음 이야기다.

공공체육시설, 나눠 쓰는 미덕으로 지역 상생 도모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은 변경되었다. 이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진 현 상황에서, 모든 지역의 균등 발전을 추구하기는 이미 늦었다. 그리하여, 각자의 지역이 자기만의 개성과 경쟁력을 지니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균형발전의 새로운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잘 사는 고창 만들기의 패러다임도 이에 발맞춰 변화해 나가야 한다. 권역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체육·문화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의 특화 사업 육성에 투자한다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기까지 할 수 있는 고창 건설도 우리 앞으로 한 발짝 다가올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권역별 시설물을 기꺼이 나눠 쓰는 미덕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고창군 공음면, 익명의 기부천사 이웃돕기 성금 기탁



고창군 공음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김수동)가 지난 11월15일 익명의 기부천사가 찾아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말 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문구가 써진 봉투에 성금 100만원 넣어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음면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후 공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계층을 위한 특화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공음면 김수동 면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 덕분에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고창'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동절기 소외계층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여성농촌지도자회 남궁명순 사무국장, 고춧가루 30kg 기탁

고창군 여성농촌지도자회 남궁명순 사무국장(상하면 회장)이 지난 11월17일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에 써달라며 직접 정성껏 재배하고 가공한 고춧가루 30kg(50근, 100만원 상당)을 고창군에 기탁했다.

남궁명순 사무국장은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의 생활지원사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독거어르신들을 돌보는 등 지역사회 복지 일을 해오고 있다.

남궁명순 사무국장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우리 주변에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코로나까지 겹쳐 더욱 힘든 생활을 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창군 주유소협회·현대고창서비스 블루핸즈, 요소수 기부 잇따라 “쓰레기수거차 등에 사용해주세요”



전국적으로 요소수 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주유소협회(고창군협회장 허현)에서 고창군에 요소수 100ℓ를 기부했다.

주유소협회는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쓰레기 수거차량 등 군민들을 위해 운행해야 하는 차량을 위해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창읍 소재 현대고창서비스 블루핸즈(대표 이금주)에서도 고창군청을 방문해 요소수 120ℓ를 전달했다, 기부받은 요소수는 고창군 관내 쓰레기수거차,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등 공용차량에 보급할 예정이다.

고창군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호응



고창군이 '재활용품 수거교환 사업'의 일환인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주민들이 각 읍면 사무소에 사용하고 남은 아이스팩을 5개 가져오면 10L 종량제봉투 1매로 교환해주는 방식이다.

올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수거해 재활용한 아이스팩의 양은 2만여 개에 달한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전통시장 및 각 수산물 판매업체에 무료로 제공된다.

재사용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아이스팩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소상공인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아이스팩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자원을 순환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고창군, 책읽는 가족상

· 김우진씨·이연희씨 가족 ·



▲ 김우진씨 가족

“가족이 1년에 책을 몇권 읽는지 모른다. 그냥 읽을뿐이다”
올해 고창군 군립도서관(군립도서관·성호도서관)에서 도서 최다대출로 고창군 ‘책읽는가족상’을 받은 김우진(38)씨. 김씨는 “군립도서관 대출이 편리하고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책을 많이 읽은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 가족은 남편 최선준(41)씨와 자녀인 현성(11)·리원(9)·지훈(6) 등 5명이 고창군립도서관에서 822권을 대출했다. 하루에 3권씩 읽은 것이다. 김씨 가족이 도서관에 가면 1인당 5권씩 총25권씩을 빌린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씨와 첫째아이가 참석했다. 김씨는 “자신은 사회·종교철학 도서, 남편은 소설책을 많이 읽고, 자녀들은 역사책을 많이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창군 복합문화도서관이 지어지면 더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연희씨 가족(103권)도 책읽는 가족상을 수상했다. ‘책 읽는 가족상’ 시상 가족은 한국도서관협회 인증서가 수여되고, 1년 간 도서대출 권수를 두배로(5→10권) 늘려 주는 혜택을 받게 된다.



▲ 이연희씨 가족

7

제1회 한두레 장애인 인권영화제·기념공연 열려

지난 12월2~3일 (사)한두레장애인자립생활협회(회장 정종구)가 주최하고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센터장 천옥희)가 주관한 ‘제1회 한두레장애인인권영화제와 기념공연’이 열렸다. 장애인 인권영화제는 단편 4편(파리행 특급 제주도 여행기, 바게트, 수련회가는 날, 봄이오면), 장편 1편(어른이 되면)이 상영됐다.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영화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 모두 담겨져 있었다. 기념공연은 가칭)한두레예술단 창단을 꿈꾸는 고창의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모임이 수준급의 실력을 뽐냈다.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천옥희 센터장은 “영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장애인·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고창을 만드는데 한 걸음 나아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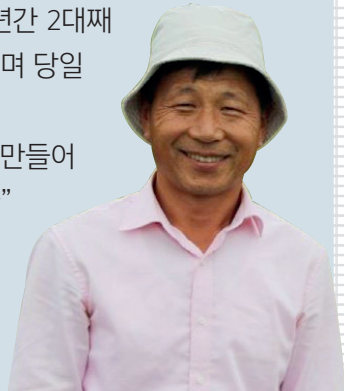
“고창군이 보증하는 최고의 맛과 품질”
높을고창물 12월의 업체소개



**「훈이네목장」
수제요구르트**

“성내면의 조용한 시골길을 따라 넓게 펼쳐진 평야에 옥수수과 호밀을 길러, 이를 젖소의 먹이로 사용합니다. 28년간 2대째 낙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당일 생산한 원유만을 사용해 수작업으로 요구르트를 만들어 맛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고훈 대표



**「선향농장」
고창 생고들빼기**

“흥덕면 송암마을로 귀농해 시부모님과 함께 친환경농법으로 고들빼기를 재배하며 재미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고창 황토땅에서 자란 고들빼기는 뿌리가 길고, 윤기가 흐르며, 알싸한 향이 짙어 전국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선향 대표



「나분농원」인디언감자

“2012년 고창으로 귀농한 열정넘치는 농부입니다. 인디언감자 ‘아피오스’는 인디언 말로 힘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이 많고, 고구마와 감자보다 단백질, 섬유소, 칼슘, 철분 등의 함량이 높은 건강식품입니다”

오정교 대표



「호야농장」참기름

“고소하게 챙기는 건강! 40여년을 정직한 농부로 살아 왔습니다. 고창에서 직접 재배한 참깨만을 사용해 고소한 맛과 향이 풍부합니다. 볶지않고 냉압착식으로 착유해 영양성분이 그대로 살아있어 신선하고 건강합니다”

이종현 대표



**「두레영농조합법인」
콩여울된장**

“직접 재배한 콩으로 원가를 절감했고, 5년동안 간수를 뺀 고창 천일염을 사용했습니다. 오래끓여도 맛이 좋고, 너무 짜지않아 다른음식들과 조화를 이룹니다. 전통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며, 철저한 품질검사로 안심하고 드실수 있습니다”

정묘녀 대표



「베리촌」발효식초 6종

“직접 키운 베리(아로니아, 블루베리, 블랙커런트, 복분자)들로 원액, 분말, 발효식초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해 깨끗하고 건강에 좋은 상품만을 엄마의 마음을 담아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최명순 대표



고창군 식품기업, 도지사 인증상품 최다(最多)선정 ‘함박웃음’



▲해풍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청맥(주)



▲질마재푸드영농조합법인



▲해리농협 천일염 가공사업소

고창군 식품기업 4곳이 지역의 식재료를 가공해 만든 우수한 제품들로 전북도지사 인증을 획득했다. 주요 제품을 살펴보면

▲민구마 반건조 꿀고구마(해풍영농조합법인)= 3년여 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 고창군 지역 주생산품 중 고구마를 활용하여 고구마 가공에 대한 새로운 제조방법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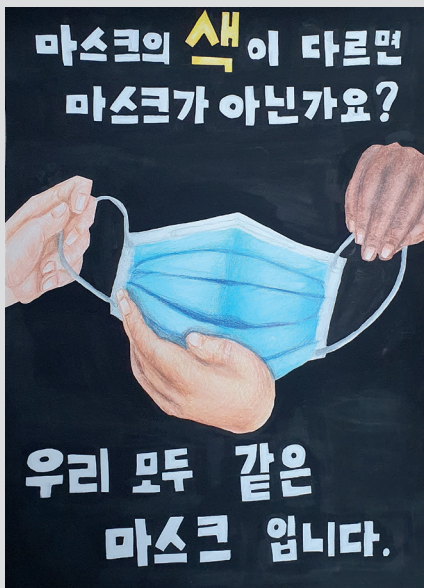
▲쌀토끼 미미의 순수한 쌀과자 귀노아 웅알이(질마재푸드영농조합법인)= 슈퍼푸드 귀노아의 이점을 살려 첨가물 없이 90%이상 쌀로만 만든 상품.

▲삼색 보리절편(농업회사법인 청맥(주))=단백질, 비타민B, 비타민E, 식이섬유, 엽산이 풍부하고 두뇌활동과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B6이 풍부한 청색보리로 만든 상품.

▲천만금 탈수천일염(해리농협 천일염 가공사업소)=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천연 미네랄 성분이 타 제품에 비해 3배가량 높아 경쟁력 갖춰.

이번 도지사 인증상품 선정제품은 내년부터 3년간 인증이 부여되며, 전북우수상품관 입전,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양한 문화존중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선정



고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대원스님)가 ‘다양한 문화존중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으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 입선 15점 등 총 25개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은 정무창(고창중 3)군의 ‘우리 모두 같은 마스크입니다’가 받았다. 현재의 코로나 19 상황을 반영한 마스크를 주제로 마스크의 색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아 심사위원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최우수작은 전예빈(고창남초 5)양의 ‘다양한 문화, 행복한 공동체’, 황유림(영선중 1)양의 ‘他 문화? 多문화!’가 선정됐다. 이번 ‘다양한 문화존중 포스터 공모전’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5일까지 총 92작품이 출품됐다.

대원 센터장은 “다른 나라와의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다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게해 다름을 편견 없이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보편적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창군 성내청소년문화의집 환경동아리 ‘푸르미’,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고창군 성내청소년문화의집 소속 환경동아리 ‘푸르미’가 ‘2021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활동부문 여성가족부장관상을 탔다.

‘푸르미’ 청소년 15명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고창의 풍부한 자랑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지역특화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드론으로 관광지를 소개하는 랜선 여행과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환경사랑 7컷 웹툰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청소년들이 주도해가는 점에서 심사단의 호평을 얻었다.앞서 성내청소년문화의집은 올해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은 물론, 전북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전라북도지사상 등을 수상하며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고창군청 양치영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여러부문에서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창 청소년들이 지역 공동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애향운동본부 애향대상, 탁경진 재경전북도민회 사무총장협의회장 선정

애향대상 탁경진, 애향특별상 김상필, 신하순, 이인석



탁경진



김상필



이인석



신하순

고창군 애향운동본부(본부장 김사중)가 '2021 애향대상 및 애향특별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애향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탁경진씨는 고창군 대산면 출신으로 2016년부터 재경고창군민회 사무총장, 2019년부터 재경전라북도민회 사무총장 협의회장을 수행해 오고 있다. 고향고창방문하기, 고향농특산물 사주기, 재경군민회 홈페이지 활성화 등 적극적인 애향활동으로 재외군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했다.

애향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상필씨는 고창초등학교 배드민턴 감독으로서 재능기부를 통해 수많은 동호인들을 양성했다.

이인석씨는 이랜드 서비스 대표로서 고향농업의 6차 산업화 육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 신하순씨는 현대판 열녀로서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지극 정성으로 돌봄으로서 군민의 본보기가 됐다.

애향대상은 자랑스런 고창인상을 구현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많은 고창인을 엄격한 심의를 통해 선정, 시상하는 상이다.

10

고창군 고인돌농악단, 제40회 전북시·군농악경연대회 대상 수상



‘제40회 전북시·군농악경연대회’에서 고창 고인돌농악단, 고수 마당바우농악단, 부안 수강농악단으로 구성된 고창군 고인돌농악단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개별 공연을 촬영한 후 동영상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행사는 지난 11월20일 남원 함파우소리전수관에서 동영상 비대면 단심제 심사로 치러졌다. 오는 12월10일 전주한국전통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2021 전북 국악인의 밤’에는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조순호 지부장과 고인돌농악단 김남영 단장이 초청되어 상장 및 우승기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군 하관수 서예가, 장애인문화예술대상 대통령 표창

하관수 선생, 출중한 서예 실력은 물론 후진양성과 봉사활동..“장애예술 인식개선 공로”



예향 고창군에서 활동하는 하관수 서예가가 제16회 장애인문화예술 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1월17일 열린 ‘2021장애인문화예술 대상 시상식’에서 야천(野泉) 하관수 서예가(68)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하 서예가는 어릴적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장애에도 불구하고 2010년 대한민국 서예한마당 전국회화대전 문인화 우수상, 올해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 입성 등 서예 실력을 인정받았다.

하 서예가는 지역에서 음악과 미술의 재능을 두루 갖춘 만능 예술인으로 유명하다. 원광대학교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고창남중학교 음악교사와 재직했었고, 고창남중 교장으로 퇴임했다. 현재는 봉사활동(서예, 기타, 우쿨렐레, 중창 등 강의)을 통해 장애예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 오고 있다. 특히 고창군의 군정철학인 ‘평이근민(平易近民)’과 군청 앞 한옥정자 ‘근민정(近民亭)’의 힘찬 글씨로 군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다.

12월 고창의인물, 김경희



📍 취석정 위치 고창군 고창읍 노동로 191-8

김경희(金景禧, 1515~1575) 고창군 고창읍 화산리 호동마을에서 태어났다. 외삼촌인 학포 양팽손의 문인으로 학문이 높았고 시에 능하였으며, 종종때 동국필원(東國筆苑)에 오른 명필이었다.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단념하고 호동(虎洞) 노계(蘆溪)에 은거했다. 1546년(명종 1) 노계 변 바위 위에 취석정(醉石亭)을 짓고 정자, 이만영, 송인수, 심광언, 양응정 등의 제현(諸賢)들과 더불어 학문을 논하고 교육하면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 문하생으로 오익창 등 100여 명이 있었다고 한다. '성리설', '언행록'등의 저서가 있었다고 하나 '노계집'외에는 전해지지 않는다. 문집인 '노계집'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노계김선생유고'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묘소는 고창군 고수면 상평리에 있는 노산사에 배향되어있다.

고창군 일자리 지원 센터

더 좋은 일자리, 더많은 일자리 통해 구직자와 구인업체 연결,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연번	업체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조건	마감일	근무지
1	대풍농자재	1	매장정리 및배달원	월급/ 300만원 (1년후상여금 년2회지급/수습3개월) 주6일근무/ 07:00~18:00 (2022년부터 주5일근무)	채용시	고창읍
2	샘터자리	2	장애인 단순근로종사원 (장애인만지원가능)	시급/ 8,720원 주5일/ 일3시간근무 (14:00~17:00)	채용시	고창읍
3	질마재푸드 영농조합법인	1	식품분야단순종사원 (과자제조생산)	월급/ 183만원 주5일근무(08:30~18:00)	12.25	고창읍
4	사임당푸드	1	식품분야단순종사원 (떡.한과제조원)	시급/ 8,720원 주5일근무/ 09:00~18:00	채용시	고창읍
5	좋은사람들 주간보호센터	1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월급/ 190만원 주5일근무/ 08:00~17:30	채용시	고창읍
6	리더스산업(주)	1	생산직사원 (용접기능사 자격증소지자)	월급/ 240~260만원 주6일근무/ 09:00~18:00 (토요격주근무)	채용시	고수면
7	(주)동산유지	1	생산직사원	월급/ 200만원 주5일근무/ 8:30~18:00 (만60세이하 지원가)	채용시	고수면
8	연경전자(주)	4	분쇄업무담당자 (불량품분쇄및관리)	시급/ 8,720원 주5일근무/ 08:00~18:00	채용시	고수면
9	린드메이드	2	생산직사원 (제조용품판금도장)	월급/ 230~400만원 (면접후협의가) 주5일근무/ 08:30~18:00 (오후휴게시간30분)	채용시	흥덕면
10	엄지식품	2	생산직사원 (볶음밥라인)	시급/ 8,720원 근무시간: 08:00~17:00/ 17:00~익일02:00 (주야2교대근무)	채용시	부안면

구인, 구직자 개인별 상담 및 DB 구축/취업 알선에 따른 구인처 정보 제공/
일자리 상담_상생경제과 일자리창업팀(063-560-2366)

사서추천, 이달의 도서

나, 있는 그대로



최재언 / 신아출판사/ 2020

군립도서관 063-560-8051
성호도서관 063-561-2421

사)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지부장 나순희) 주최한 제22회 고창문학상에 최재언 시인의 '나 있는 그대로'가 선정됐다. 최재언 시인은 고창출신으로 2006년 문예사조로 등단해 전북문인협회 이사, 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주변에서 아이를 낳으면 한글 작명을 해주는 문인협회 지부장님으로 더 알려져 있기도 하다^^ 작가는 첫 시집을 통해 '소소한 날의 행복'을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초기 청자 메카’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 관리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高敞 盤岩里 靑瓷窯址)’가 전라북도 문화재(기념물)로 지정돼 보존·관리된다. 특히 ‘용계리 청자요지’와 함께 고창군이 대한민국 초기 청자의 메카로 인정받게 됐다.

반암리 청자요지내 벽돌가마는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가마 길이는 40m 내외로 추정되고, 너비는 2.7m, 바닥경사도는 10° 내외의 규모이며, 3회 정도 개축해 운영했음이 확인됐다. 또 벽돌가마(1호) 위로 중형의 진흙가마(2호)가 축조됐고, 그 위쪽으로 소형의 진흙가마(3~5호)가 순차적으로 축조되는 아파트형 구조를 보였다. 이는 벽돌가마와 진흙가마가 순차적으로 축조되어 초기청자가마의 변화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특징으로 우리나라 도자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았다. 이밖에 대형 건물지까지 확인되는 등 우리나라에서 보기드문 유적으로 고고·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 위치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탑정마을 일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투명 페트병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① 비운다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합니다.

② 행군다

재활용품에 붙어있는 이물질, 음식물 등은 한 번 행군서 배출한다.

③ 분리한다





라벨 등의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하여 배출합니다.

④ 섞지 않는다

종류별, 색상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함으로 배출한다.



제3회 상하농원 ‘자연을 담은’ 사진·영상 공모전

공모 주제	① 자연과 문화예술 속의 상하농원 ② 농업과의 조화로움 ③ 상하농원 여행코스 ④ 상하농원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 ⑤ 참신하고 독특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작품 ⑥ 계절의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		
응모 기간	2021년 10월 1일(금) ~ 2022년 2월 28일(월)		
응모 방법	상하농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작품 규격 및 조건	<div>  사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점 이하의 디지털 수 파일 혹은 A3 이하의 실물사진 - A3 크기 이하의 실물사진 혹은 10MB 이하의 디지털 파일(jpg) - 파일명: 출품자_작품명.jpg </div> <div>  영상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와 관련된 60초 ~ 3분 이내 동영상 파일 - 해상도 1920x1080픽셀 이상 avi, wmv, mp4 등 고화질 영상 (카메라, 스마트폰) - 유튜브에 응모작 일부공개 업로드, '상하농원 자연을 담은 사진영상 공모전' 필수 기재 - 필수 해시태그 #상하농원자연을담은사진영상공모전 </div>		
시상 내역	 사진 분야	 영상 분야	결과 발표
	대상 1명	300 만원	
	최우수상 각 2명	100 만원	100 만원
	우수상 각 5명	30 만원	30 만원
	장려상 각 10명	수영장·스파 이용권 2장	수영장·스파 이용권 2장
- 수상자 :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및 수상자 개별통보 * 제세공과금(22%)은 수상자 부담 * 시상기준에 부합하는 응모작이 없을 경우 시상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상작 원본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상은 취소 됩니다. ★ 심사기준 및 유의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자세히 보기

2022년
3월 중